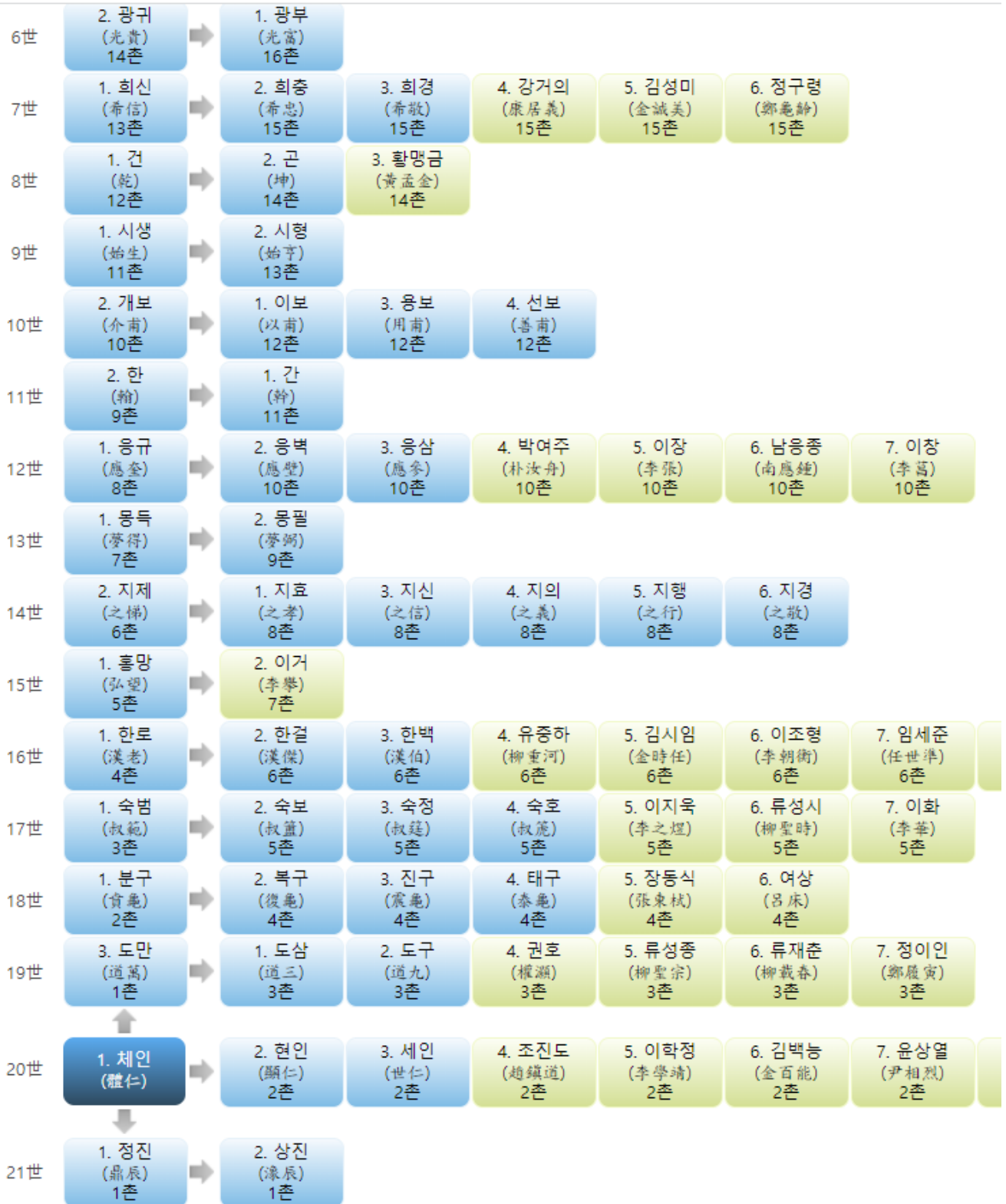


신체인 [申體仁]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자장(子長), 호는 회병(晦屏). 신숙범(申叔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신 분구(申賁龜), 아버지는신도만(申道萬)이고, 어머니는의성 김씨(義城 金氏) 김민행(金敏行)의딸이며 부인은 풍산 유씨(豊山柳氏) 유후원(柳後元)의딸이다.

활동 사항

신체인(申體仁)[1731~1812]은 3~4 세대 이웃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말도 없이 그 집에 가서, 글 읽는 소리를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만큼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어려서 화장산(華藏山)[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의초당에서 공부하였고, 장성해서는 김낙행(金樂行), 임필대(任必大),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수학하였다. 30 세 무렵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의술·병가·산수(算數)·복서(卜筮) 등 여러학문을두루 섭렵했다고 한다

1761 년(영조 37) 향해(鄉解)에 응시해서 장원하는 등 학문적 명성이 있었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1782 년(정조 6) 금산(錦山)[구미리]에 금연 정사(錦淵精舍)[현 금산 서원(錦山 書院)]가 완성되자 그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786 년에는빙계 서원(氷溪 書院)의 교석(敎席)을 주도하며 통강례(通講禮)를행하고자, 주자(朱子) 의월삭회약(月朔會約)을모방해 의절까지 정해 놓았으나 실시하지못하였다.

1788년 눈병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자, 존양(存養) 공부에 열중하였다.

1807년(순조 7) 경술과문장이 모범이 된다하여 의성 현령(義城 縣令)이 천거하였고, 경상도 관찰사가 연이어 신체인의 학행을 조정에 계청하였다.

梧峯申之悌와 孤松 申弘望의 후손으로 벼슬은 하지 않은 채 산림에서 李象靖, 金樂行의 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文才와 學德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의 저서로는 시문 외에 聖賢들의 '敬'에 대한 요지를 편찬한 「崇敬錄」 2책이 남아 있다.

저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族子인 申鼎周(1764~1827)가 지은 遺事(申鼎周 著, 陶窩集 卷 4),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저자의 아들 申灑辰(1779~1834)이 所菴 李秉遠(1774~1840)에게 부탁하여 1834년에 받은 행장 뿐이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에 의해 저자의 유적과 유문이 수습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편찬 간행에 대해서는 序跋文이나 다른 기록이 없어 문집의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가 없다

학문과 저술

이상정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던 280여 명의 인사들과 호문학단(湖門學團)을 구성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호문학단 중에서도 그는 학문이 뛰어나 호문육군자(湖文六君子)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의 문집으로는 12권 6책의 『회병집(晦屏集)』이 전하는데,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병집』 권 6에 수록되어 있는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천주교를 비판한 글로, 당시 천주교에 대한 영남 유림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도 '경(敬)'의 요체에 대해 설명한 4권 2책의 『송경록(崇敬錄)』을 저술하였으며,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형제의 어록인 『훈지양선생어록(塤簾兩先生語錄)』도 산교(刪校)하였다. 한편,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에는 『징성록(徵省錄)』을 저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동곡(凍谷)에 있다.

상훈과 추모

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있는 금산 서원에 신지제(申之悌), 신지효(申之孝)와 함께 배향되어 있다. 금산 서원은 신체인이 강학을 위해 1782년 건립한 금연 정사를 1977년 중건하고, 1981년 서원으로 승격한 것이다. 신체인의 위패는 신지제와 함께 1977년 배향되었다.

금산서원(錦山書院)

연혁

금산서원(錦山書院)은 1782년(정조 6)에 신체인(申體仁)이 금연정사(錦淵精舍)를 창건하여 금산언덕에 서당을 세워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쓰며 시작되었다. 신체인이 세상을 떠난 뒤 132년 후인 1912년에 무너져 현판만 남아 전해왔던 것을 1977년에 새로 중건하고 1991년에는 유림의 공의를 얻어 금연정사를 금산서원으로 승격시켰다. 이때 신체인과 함께 신지제(申之悌)를 봉향하였다. 지금도 강당에는 금연정사 현판과 금산서원 현판을 게시하고 있다. 2005년에 신지효(申之孝)를 추향하였다.

배향인물

1) 신지효(申之孝, 1561~1592)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이다. 임진왜란이 급할 때 아우 지제(之悌)는 선성현령(宣城縣令)으로 있고 선생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집에 있다가 바위틈에 숨어 있더니 왜적이 쫓아와서 칼로 선생의 왼쪽배를 쳐서 피가 혼건히 흐르는 지라 선생이 목숨이 끊어질 때 침을 입으로 씹어 붓을 만들어 가지고 혈서로 옷소매에 써서 아우에게 주기를 "나의 몸가짐이 주밀하지 못하고 효성이 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늙은 부모는 여러 아우들이 있어 모시고 있거니와 군(君)은 이미 몸을 왕실에 맡긴 지라, 직수(職守)가 있는 터이니 마땅히 난에 임하여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내 시체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여 다행히 발바닥에 선성(宣城) 두 자를 써서 알도록 하였노라" 하였다. 조선 때의 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2) 신지제(申之悌, 1562~162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부(順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 경상도 의성 출신. 증창례원판결사 한(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공조참판 응규(應奎)이고, 아버지는 증좌승지 몽득(夢得)이며, 어머니는 의흥박씨(義興朴氏)로 민수(敏樹)의 딸이다.

1589 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1601 년 정언(正言)·예조좌랑, 이듬해 지평(持平)·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등을 거쳐 1604 년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역임하였다.

1613 년(광해군 5) 창원부사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던 명화적(明火賊)을 토평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인조반정초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예안현감 재직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모집, 적을 토벌하였다. 간관으로 있을 때 직간하였고, 수령재임 때에는 치적을 남겼다.

그의 시문은 문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의성에서 장대서원(藏待書院)을 세워 지방자제교육에 힘썼고, 죽은 뒤에는 김광수(金光粹)·이민성(李民晟)·신원록(申元祿)과 함께 그 서원에 배향되었다.

3)신체인(申體仁, 1731~1812)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자장(子長), 호(號)는 회병(晦屏)이다. 오봉(梧峰) 지제(之悌)의 후손, 도만(道萬)의 자(子)로 김락행(金樂行), 임필대(任必大),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이다. 어려서 화장산(華藏山) 초당에서 독서에 몰두하여 30 세 전후에 경전(經典)과 천문지리(天文地理), 의술(醫術) 등 두루 통달(通達)하였다. 이후 호문(湖門)에서 도학(道學)을 연마하였으며 출사(出仕)에 뜻을 끊고 오직 경(敬)하나로 거경궁리(居敬窮理)하면서 송경록(崇敬錄)을 저술(著述)하였으며 이대산(李大山)의 묘갈명을 채제공(蔡濟恭)에게 받았으며 채공(蔡公)이 이르기를, “공(公)이 진정 참된 글 읽는 선비로다”라고 했다. 김천사(金川沙), 남손재(南損齋), 김구재(金苟齋), 이묵허(李默軒), 정입재(鄭立齋), 안순암(安順庵) 등과 상교(相交)하였으며 호문육군자(湖門六君子)로 금산서원(錦山書院)에 제향(祭享)되고 문집 12 책이 전한다.

건축물

금산서원은 강당의 서측면으로 사당이 배치되어 있는 병렬형태이다. 또한 독특하게 서재는 강당의 남측에 자리하고 있으나, 동재는 강당의 동측에 수평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존하는 건축물로는 모현사(慕賢祠)인 사당과 강당, 동재, 서재인 존성재(存誠齋), 누각, 송교문(崇教門)이라 쓰인 외삼문 등 총 6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